

SERMON ADVENT 3 JOY

혹시 영화 "러브 액츄리"를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러브 액츄리"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TV 에서 정기적으로 방영됩니다 왜냐하면 그 배경이 크리스마스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은 맨 처음과 마지막으로, 히스로 공항의 도착지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들의 얼굴은, 나이가 든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다양한 문화에서 왔든,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포옹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을 몇 번이고 지켜볼 수 있습니다. 저의 남편 클라이브는 영화 전체를 반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쁨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희망과 평화와 기쁨의 촛불을 밝혔고, 그 불빛은 타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대강 절 첫 주일에 희망에 대해 이야기 했을 때, 저는 이 주제들에 대해, 사랑을 추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일요일에 이 주제들이 모두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깊은 인간의 감정입니다. 그것들은 또한 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희망, 평화, 기쁨과 사랑을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 그 모범을 우리가 따르라고 부르신 것 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쓴 것을 듣는다면, 우리는 종종 이것을 듣습니다. 로마서 15 장에 그는 어려운 상황에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리고 몇 절을 남기신 뒤에, 그는 이렇게 사랑의 말씀을 썼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대로, 소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기쁨과 평화를 주셔서, 성령의 힘으로 소망을 넘치게 하시기를 빕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믿음에 대한 희망, 평화, 기쁨, 사랑은 우리가 뿌리 깊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이 그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이러한 핵심적인 것들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그것을 붙잡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매년 이 시기에 하나님의 성육신으로 다가 오시는 하나님의 신성함이 다가올수록, 모든 신비와 그것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때에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의 근원을 상기시킬 다른 무언가가 필요한 듯 합니다. 우리는

그 기저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차원, 즉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방식에 있어서 우리를 희망, 평화, 기쁨, 사랑으로 이끌어 줍니다.

저는 오늘 우리 주변에 잠시 멈춰서 열리기를 기다리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신앙의 언어로 구체화되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하나님의 임재에 함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실제 상황이었던 러브 액츄리의 즐거운 장면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희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과 함께 우리의 마음 속 깊은 열망과 많은 것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또한 우리가 아름다움으로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관성을 느낄 수 있나요? 카트리나 램버트가 쓴 "아름다움"의 시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삶

가려움증 속에 들어가면 닿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첫 충격의 인정이고

우리 안에 숨겨진 깊은 반영의 어떤 것 입니다.

아름다움에 놓여 있습니다.

지평선의 봉합된 선에서요.

두 번째 선물은 성찬의 기쁨입니다.

우리 내면의 세계에 합류하는 것

수 십억 개의 천체들의 무한한 하늘과 함께.

아름다움이 살아 있습니다

시간을 초월해서요.

그것의 세 번째 선물은 영원한 영광입니다.

현재 바늘 구멍으로 빠진 채로

무한대는 우리의 진정한 고향이 될 것입니다.

C. S Lewis 는 20 세기 기독교 신앙에 대해 가장 사랑 받는 작가 중 한 명이 되었으며 여전히 널리 읽히고 있습니다. 그의 책 '기쁨에 의한 놀라움'은 무신론에서 이교도로의 여정과 기독교로의 여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움과 기쁨이 그를 그 여정으로 인도 합니다. 그는 기쁨을 마치 이정표와 같이 말하고, 숲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길을 가리켜 줍니다. 그는 "우리가 도로를 발견했고 몇 마일 마다 표지판을 지나고 있을 때"만큼 그것의 외관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당신에게도 느껴지는지요? 우리의 눈이 수 마일 마다 또는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것을 알아 차리나요? 때때로 우리는 볼 수 있지만, 때로는 일상 생활의 걱정 때문에 눈이 멀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희망과 평화를 생각할 때 묘사한 대로, "내 깊숙한 곳에 숨겨진 무언가를 투영한 캐서린의 노래"에서 찾을 수 있는 아름다움을 향한 돌진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마이클 프로스트는 우리의 깊은 내면에 숨겨진 것이 완벽에 대한 무의식적인 갈망이며, 그 어떤 것이든 숭고하거나 완벽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그 갈망을 자극한다고 봅니다.

C. S 루이스는 이 동경을 "무엇을 모르는 우리의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슬픔을 설명하는 독일 단어인 셴슈트로 명명했습니다. 루이스는 "탈 수 없는 무언가가 불타는 듯한 냄새, 야생 오리의 하늘 위를 나르는 소리, 세계 종말의 소리, 늦여름 아침의 거미줄 또는 떨어지는 파도의 소리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 안에 뭔가를 일으킵니다. 마이크 프로스트는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알아볼 수 있는 눈짓을 하면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직관과 일의 증거임을 확신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갈망이 만족할 수 있는 열망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알려지지 않은, 인정되지 않은 우리의 가장 깊은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왔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발견된 모든 인류의 희망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충분히 만족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주변의 놀라움과 아름다움을 보여 줌으로써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와 함께 하는 모든 것들이 우주와 함께 합니다. 별이 빛나는 하늘의 아름다움이나 해변을 따라 걷는 것은 우리를 창조주와 연결시킵니다. 위대한 지휘자 토스카니니가 그랜드 캐년을 한번 방문한 후에 그랜드 캐년을 보고 나서 별안간 박수 갈채를 치는 것이 그가 할 수 있었던 전부였다고 합니다.

기쁨은 우리가 우리 주변의 하나님을 한번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의 일부이고 창조되는 모든 일의 일부인 것을 발견할 때 우리 안에서 잘 나타납니다.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의 성찬식의 기쁨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배제할 장벽도, 소속될 자격도 없습니다, 단지 열린 마음만 있습니다. 주어진 것은 순수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록 사물들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을 때 조차도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우리가 투쟁과 그림자를 통해 깨어지고 있는 사랑, 평화 그리고 투쟁과 그림자를 헤치고 나아가는 사랑을 보는 것 입니다. 따라서 기쁨이 대림절의 단어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대림절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쁨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불리한 것은 그것이 사람들을 찾는 것이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모든 사람들을 행복한 교감으로 이끌어 주는 기쁨의 성찬식이라는 점입니다. 대림절은 우리에게 천국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노래할 때의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시킵니다. 아마 우리는 천사가 우리 주위에서 노래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의 모든 곳에서, 우리에게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 주는 것들을 보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흔들린다는 것과 우리를 땅에 묶어 놓는 끈이 단단히 묶여 있다고 믿는다는 것이 유일한 단점입니다.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크리스마스 이야기 중 어떤 것이든, 마태나 누가에서, 예수의 탄생을 기뻐한 사람들이 양치기들이 양을 돌보는 것과 같은 그들의 정상적인 제약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현명한 사람들은 무리를 따르면 별과 별을 볼 만큼 충분히 자유롭습니다. 대림절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위대하고 깊은 갈망인 루이스의 깊은 열정이 다시 태어나리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사랑이 다시 태어나리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계시가 모든 삶과 시간 속으로 엮어 있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우리의 상실과 환난 가운데서도, 세상의 고통과 환난에서, 심지어 사랑과 믿음의 상실에서

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그의 사랑에서부터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 메시지는 메아리가 울렸고 그것을 하나님의 시간을 넘어섰습니다. 카트리나 램버트의 마지막 운을 다시 인용하자면," 아름다움은 시간을 넘어서 존재합니다. 세 번째 선물은 영원한 영광입니다 - 우리가 그 순간의 무한대를 넘어 무한대로 끌려가는 것처럼 우리의 진정한 귀향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아름다움, 희망의 아름다움, 평화, 기쁨, 그리고 사랑.

천사들이 기뻐하는 소리와 창조의 소리가 들리시나요? 그들은 우리를 그들과 함께 기뻐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